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학 변호사·힘몰결아트센터 대표

선배 변호사와 함께 어느 날 현장검증을 가게 되었다. “윤 변호사,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내 수입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선배는 “나보다 수입이 세 배나 많구나!” 하며 놀라는 것이었다. 부장판사를 지낸 그의 수입이 초차 변호사인 나보다 훨씬 적다니... 나도 놀랐다. 경력이든 인맥이든 내놓을 것 없는 나에게 그 선배가 비결을 물었다.

판검사 경력도 없던 내가 사무실을 열자 사람들은 브로커라도 써야 사무실 유지가 될 거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개입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내 사무실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법조 고위직 출신이나 브로커를 쓰는 사무실에 가 보면 손님이 북적북적했다. 하지만 난 무슨 배정인지 그런 변호사는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인이 찾아와 남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었다며 “석방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사건만 잘 처리하면 직원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낼 수 있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편들의 죄가 커서 힘들겠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고객을 놓칠 것이 뻔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한 부인

‘선(善) 자원론’

이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말아 주세요.”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 부인은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도 만났어요. 수입료만 많이 주면 석방시킬 수 있을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나는 세운상이 일등 장사꾼입니다. 얼굴만 봐도 거짓말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비용은 얼마 드리면 되나요?”

2백만 원이라고 하자 부인은 백만 원권 수표 30장을 내밀었다. 어차피 선임료로 쓰려고 가지고 다닌 돈이라며서. 1987년 당시 3천만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 나는 내가 말한 수입료만 받았다. 부인은 날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며 전화로 물어 왔다. 전 재산 7백만 원으로 전세 살고 있던 처지였지만 나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다른 부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를 5천만 원에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괜히 신바람이 났다. 열심히 변호했더니 내가 맡은 그 남편이 더 빨리 석방되었다. 이후 그 부인이 다른 손님을,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소개해 주며, 내 사무실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전관예우’만 믿고 현신을 왜곡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말이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면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후로도 체험하고 또 체험했다. 돈벌이도 어릴 적 책에서 읽은 대로 되는 것이 신기했다. 가슴속에 새긴 대로 살아가려는 순수한 마음! 나는 그것을 ‘선(善) 자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없으면 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세포는 굶어 죽고 끝내 체내 독소로 남아 질병을 일으킨다. 음식이 좀 부족해도 인슐린이 있으면 세포가 살 수 있듯이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해도 내게 ‘선 자원’만 있으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나 지위를 쌓아도 ‘선 자원’이 없으면 남에게 해만 끼치고 결국 자신까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그 확신은 더욱 커져 갔다.

그러나 우리는 학력·인맥·경력만 높이높이 쌓으려고 한다. 정작 삶에 가장 중요한 ‘선 자원’은 외면한 채! “남편이 착해 빠져서 혹은 아들이 요령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마치 좀 속일 줄도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던가. 다행히 ‘선 자원’은 우리 마음속에 무한히 잠자고 있다. 누구나 깨우기만 하면 무진장 캐낼 수 있다. 초라한 경력과 재산이라도 ‘선 자원’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든가. 이보다 더 신나는 삶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우리에게 대립과 투쟁을 부추기지만 ‘선’이 ‘자원’이라는 ‘선 자원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훨씬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거라고 그 선배에게 말했다. 인류가 자원 전쟁 없이 경쟁하지 않고도 잘살 거라며... 그러나 선배는 ‘선’을 ‘자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며 웃는 것이었다. 하지만 까마득한 후배의 이야기에 그만큼 귀 기울여 준 것만도 그 선배의 잠자고 있던 ‘선 자원’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니었을까.

종교칼럼



중현 광주침성사 주지

2021년 8월 12일, 폭염에 온 세상이 녹아 내리던 오후, 오랜만에 자투리 시간이 생겼다. 이런 때에 제대로 쉬어야 하지만, 쉬다고 절에 있어 봐야 마땅히 할 것도 없을뿐더러 딱히 갈 곳도 없다. 절이 생활 공간이자 직장이자 수행처이기도 한 개인적 특수성 탓에 일이 없는 날이 쉬는 날이요 휴가다 보니 정작 시간이 나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도대체 휴식이란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기만 하다.

점심을 먹고 아무 일 없이 멍하니 있자니, 심심한 건지 외로운 건지 분간하기 힘든 묘한 느낌이 무의식의 심연을 뚫고 올라온다. 불청객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감정이다. 혼자서 오래 살다 보면 외로움과 심심함이 고통스럽게 녹아서 서로 뒤엉키는 특이점의 순간이 찾아온다. 인간적 결핍이 주는 고통에는 점점 더 무디어지는 대신, 말초적 심심함에는 갈수록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밤이 되어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페이스북에 들어 갔더니 친절하게도 4년 전 오늘의 내가 나를 맞이한다. 2017년 8월 12일, 나는 오늘과 꼭 같이 휴식에 대

세상에 참 휴식 없으라

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다. 4년이란 긴 세월이 가위에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 두개의 8월 12일은 종이 한 장의 빈틈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4년 전 8월 12일, 나는 일본 홋카이도로 떠났던 4박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당시 나는 여행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른 아침의 옥상 노천탕엔 나 혼자 밖에 없었다. 노천욕탕은 거울처럼 잔잔했다. 눈앞에 펼쳐진 호수 역시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천탕의 물이 살짝 넘치고 있어서 마치 욕탕의 경계가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깨까지 몸을 담그니 어디까지가 노천탕이고 어디부터가 호수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노천탕과 호수의 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 호수 전체가 아주 커다란 노천탕이 되었다. 나는 따뜻하면서도 까마득하게 넓은 호수에 몸을 담고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잔잔한 수면, 하늘을 가득 채우며 낮게 드리운 구름, 그리고 구름에 몸을 숨긴 산들을 응시하였다. 눈앞의 세상은 참으로 단순했다. 물, 구름, 산 그리고 흐린 하늘이 전부였다. 흐린 날씨 탓에 물빛과 구름은 짙은 회색빛이었고, 아직 이른 아침이라 산 역시 짙은 그늘 속에 있었다.

나는 미동조차 하질 않았다. 한동안 그렇게 있자니, 이 순간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잠시나마 나는 완벽하게 나의 삶, 인간 세상 그리고 문명으로부터 도피하였다. 지금까지의 나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진정한 휴식이란 바로 문명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옥상 노천탕에서 겪었던 그 느낌은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그 순간 이후로도 나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지만 그때의 하늘, 그때의 산이 아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의 느낌은 일상을 반조하는 거울이 되었다. 그 순간 이전까지의 나는 제대로 된 거울도 없이 자신을 보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해왔던 것만 같다.

4년 전의 기록을 보는 순간, 방금 전 일인 듯 느낌 하나 하나가 생생하게 복원되었다. 참으로 신기하다. 지난 4년 동안 그날의 느낌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느낌을 다시 접하자마자 나의 의식 속 4년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사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나는 오후 늦게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돌아왔다. 6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바다를 향해 달려서, 백수해안도로의 갈매기가 되었다. 그리고 전방대난간에 앉아 일말의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4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휴식은 내 영혼을 꽁꽁 감싸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놓고, 내 안의 자연을 만나는 원초적 체험이다. 그래서 제대로 쉬기가 이리도 힘든 모양이다.

기고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정책의 기본에는 주민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늘 현장에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금과옥조처럼 새겨야 할 생활 행정의 대명제이자 민선 7기 광주 북구 행정의 기조이다. 중심부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수많은 정책은 현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보고 듣지 않고서는 민생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없다. 현장은 항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문제의 식이 풍부한 곳이며 갈등과 문제해결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선 7기 북구는 현장에서 가공되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민생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덧 100회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간의 보람들을 돌아본다.

지난 2018년 7월 첫 번째 방문지 신용근리공원부터 2021년 8월 백 번째 ‘이달의 기업인들과의 만남’까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가장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광주 북구

지역에 남는 건 1호 방문지의 건의 사항이다. 첨단 2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달라는 호소, 말바우시장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 이들 모두 주민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2021년 3월 첨단 2지구에 110명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금년 연말에는 시화문화마을-말바우시장-일곡동-첨단, 일곡동-양산동-신용동-연제동-동림동-DJ센터 등 2개 노선의 마을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두 사업 모두 3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

현장에서 만남을 거듭할수록 주민 요구의 공통본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체육시설, 공영문화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바람이었다.

2019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니 주민 요구의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수혜 인구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공영문화시설의 경우 우산·두암·문화권역, 신용·건국권역, 양산·일곡권역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도 전국 자치구 평균 비율 미만으로 중규모 권역별 주차장 확충이 필요해 보였다.

지역민의 요구를 다 담아내는 건 만만치 않았다. 단 순환 바람만으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길이 요원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30조 원을 투자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그 돌파구가 되었다.

기회는 왔다.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해 도전했다.

그 결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 규모인 국비 227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민 누구나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공공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돌봄센터 등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시설이 2022년까지 들어선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가장 많은 요구 중 하나는 주차난 해소였다.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다. 권역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138억 원을 들여 199면, SOC 복합화·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460면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말이면 시간 나는 대로 등산로와 산책로, 공원 트레킹을 즐긴다. 현장에서 듣는 주민의 목소리는 보약과 같다. 뭘 원하든지, 무엇을 행동에서 놓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깨달음의 기회’다.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Never stop dreaming)는 영어 명언이 있다. 수많은 영감을 받고 소통의 기회를 준 현장 방문, 주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社說

‘부영 회장 석방’ ‘용도 변경’ 이중 특혜 아닌가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뉴스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정적인 일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지 않은 일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광복절 가석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오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회장은 사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만 5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나 변태도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면서 ‘특혜 가석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

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부영그룹이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에 5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일부를 한전공사 부지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얻은 이익이 너무 크다. 부영은 특히 혁신도시에 부족한 학교 신설부지 제공 등 공공 기여 확대 요구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가석방’에 ‘용도 변경’까지 누가 보더라도 부영에 대한 이중 특혜 아닌가. 그런 만큼 부영 측은 이익 추구에만 나설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주시도 마냥 사업자에 끌려다니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5·18 가로수길’ 잘 가꿔 나가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5·18 가로수길’이 훼손·방치되고 있어 관리 및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5·18 가로수길은 담양군 수북면 입구에서 성암국제수련원(옛 성암야영장)을 잇는 4km 도로 양쪽으로 조성됐다. 1981년 김중호 당시 전남도지사가 제안해 5·18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고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며 새 희망으로 미래를 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고(故) 홍승민 광주 YMCA 2대 재단 이사장(홍안과 의사)이 수북면 일대 약 16만5289㎡(5만 평) 임야를 무상으로 내놓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 성금을 모아 성암야영장 터를 잡을 때 야영장 주변 4km 도로에 ‘5·18 가로수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삼엄한 군부독재 치하에서 조성된 ‘5·18 가로수길’은 이

제 조성에 관여한 몇몇 인사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조성 40년이 지나 잊혀 가는 5·18 가로수길은 벚꽃·목련·메타세쿼이아·축박·느릅·아팝나무 등 18종이 넘는 아름답디가 로수들로 빼곡한 녹색 공간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부 가로수가 불에 타거나 잘려 나간 가로수도 상당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행정기관마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5월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모와 기억을 위해 조성한 공간인데도 지키는 곳이 많다. 이제라도 5·18가로수길을 널리 알려 지역민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최소한 5·18의 의미를 담아 조성된 곳이라는 표지석이나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보존해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홍룡한 간호사하면 흔히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것이지만, 또 한 사람 메리 시콜이라는 간호사도 있다. 이 두 사람은 크립전쟁(1853-1856)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간호사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병들을 치료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이팅게일은 환자 치료보다는 병원 행정 및 위생 시스템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철저한 병원 관리로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42%에서 2%까지 줄였다. 물론 환자에 대한 열정도커

유로 배제됐다. 나이팅게일 간호단에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역시 탈락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비로 전장 가운데에 치료소를 설치해 환자를 돌봤다. 최전선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접 치료소를 설치해 1차 부상자를 치료했다. 이 때문에 부상병들은 그녀를 ‘마더 메리’라고 불렀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부상자 관리로 사망률을 크게 낮춘 그녀를 영국군은 ‘전장의 천사’라 칭송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나이팅게일은 지금까지도 ‘백의의 천사’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흑인인 메리의 존재는 나이팅게일에 가려져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영국·터키·프랑스 등 3개국에서 훈장을 반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러다 150년이 지난 2000년 우연한 기회에 메리의 초상화가 발견되면서 그녀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얼마 전 중앙병원에서 무료함을 달랠 주기 위해 할머니와 고스톱을 치는 방호복차림의 간호사 사진이 보도돼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점점 지쳐 가는 방역 최전선의 간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겠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전장의 천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